

소설로 읽는 '조선왕조 500년'

인기 역사드라마 小説化한 극작가 辛奉承씨

지난 5년동안 MBC - TV에 인기리에 방영된 대하 역사드라마 「조선왕조500년」이 금성출판사에서 전48권의 소설로 완간돼 나왔다. 원고지 분량 5만8천장(초고와 재고 분량을 합치면 15만장), 집필기간만 5년5개월이 걸린 大役事가 한 작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일반 독자들은 문학성이나 역사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경외감부터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필생의 대작'을 완성하고 난 지금 작가 辛奉承씨(55)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마음 둘 곳이 없는 허허한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다시 이같은 작업을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필할 때 걸렸던 작업복의 팔꿈치가 닳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몰두해온 이 작업이 끝난 지금 그를 사로잡는 감정은 벅찬 감회와 뿌듯한 자부심이기 전에 '허공에 떠 있는 듯한' 허탈감인 듯했다. 이처럼 힘들 줄 몰랐으니 계약하고 도전해서 끝마칠 수 있었지, 만일 알았다면 착수할 엄두도 내지 못했으리라는 말에서도 그가 통과해온 지난 5년여 기간의 중압이 느껴진다. 이것을 그는 한마디로 '원고지와 펜이 원수같은 심정'이었다고 표현했다.

正史를 바탕으로 조선조 전체를 작품화

그가 언젠가는 이 작업에 손을 대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드라마를 처음 쓰던 당시 그는 마땅한 史料를 찾지 못해 항상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뒤 여러 자료를 섭렵하고 선배작가들의 역사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저자의 명성과 달리 터무니 없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의 석사학위 논문(경희대)은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바쳐지기도 했다.

아울러 조선시대를 다룬 기존 역사소설이 가진 또하나의 문제점은, 閔皇后나 大院君을 주축으로 하는 최근세사를 작품화한 것은 더러 있으나 肅宗朝 이후의 사실을 취급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역사소설가에게 있어 다시 없는 보고 구실을 해온 李肯翬의 「燃藜室記述」이 숙종조까지만 기술하고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회관 2층에 자리잡은 '한국역사문학연구소'. 이곳이 바로 「설중매」 「풍란」 「인현왕후」 등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온 인기 역사드라마 「조선왕조500년」의 산실이다. 작가 신봉승씨는 최근 이 드라마를 正史에 입각, 전48권의 소설로 완간하여 TV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작가들이 조선시대 야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연려실기술」에만 의존해온 결과 숙종조 이후 부분, 예컨대 實學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각에 눈뿜던 英·正祖시대와, 천주교의 정착과 박해를 거치면서 異樣船이 출몰하여 서구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격동의 시대가 증발해버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필기간이 지극히 짧았던 임금들, 정종·예종·경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이처럼 역사의 빈 구멍을 메우고 왜곡된 부분을 正史에 의지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마침 「조선왕조500년」이란 드라마를 쓰고 있던 내게 일종의 지상과제로 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봉승씨가 소설 「조선왕조500년」을 쓰는 데 있어서 기동으로 삼은 것은 「朝鮮王朝實錄」일 수밖에 없다. 총1천8백67권, 8백87책에 달하는 한문본의 방대한 사료를 소설의 열개속에 짜넣는 작업은 참으로 지난하고 힘겨운 일이었다.

우리 민족은 '역사에 대한 외경심' 가져

“해놓고 보니 굉장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권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기록일 테니까요. 이 소설이 문학적

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목적은 역사를 대중화해서 독자들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자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학생도 교수도 직장인도 되도록 많이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다 읽어도 전혀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조선 역사에 대한 인덱스 구실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렵고 고달픈 작업을 하는 동안 임진왜란을 다룬 28권은 일본 講談社에서 상·하권으로 번역되는 기쁨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드라마가 TV로 방영되는 동안 유형무형의 압력도 적지 않게 받아야 했다. 한평화라는 특이한 인물을 부각시킨 「雪中梅」가 한때 TV 시청률 70%를 기록한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가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言路를 열어라」 외척이 권부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在野의 말을 들어라」 등등의 대사가 당시의 미묘한 정치상황에서 힘있는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리라. 「조선왕조500년」이 여성취향의 궁중비사가 아니라 본격적인 정치드라마였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다.

“심지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송이 1년 동안 강제 중단당하기도 했어요.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을 비취보는 거울에 다름아니다는 사실의 증거이겠지요. 하나의 권부 혹은

세도가 과멸하고 새로운 권부와 세도가 탄생하는 과정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된다는 사실도 이 소설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봉승씨는 조선이 내외의 도전을 물리치고 오백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綱常과 倫紀」를 으뜸으로 여기는 「德治」에 있다고 본다. 청백리와 좋은 원로들이 살아 있었고 임금까지 비판할 수 있는 상소제도가 보장됐기 때문에 권력의 상층부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조실록」을 보면 임금을 호되게 욕한 대목이 나오며 인조반정같은 쿠데타까지 완벽하게 서술돼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외경심'을 말해 주는 좋은 증거로서 관찰임에도 불구하고 「왕조실록」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농담이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석굴암을 바꾸자 해도 바꾸지 않겠다고.

극작가이기보다 시인이고 싶어

신봉승씨는 방송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은 시와 평론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시는 靑馬에 의해, 평론은 조연현씨에 의해 각각 「현대문학」에 추천되었다. 그러나 「시골(강릉)에서 태어나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좀 편히 사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그것이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극작가로서보다는 시인으로 남고 싶다는 그는 지금도 시를 꾸준히 쓰고 있다면서 환갑기념으로 시집을 한권 내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71년, 당시로서는 최초의 영화평론집 「영상적 사고」를 냈으며 지난 여름 「내 인생 초록을 들이면서」(문학정신사)를 내는 등 활발미인적인 활동을 해온 그는 일단 「조선왕조500년」의 완간으로 '자신이 태어난 소임'은 다했다고 보고 새 작품의 집필을 위한 충전에 들어가 있다.

금성출판사에서는 「조선왕조500년」의 완간과 신봉승씨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을 경축하는 기념회를 11월23일 오후6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일회성이란 한계를 가진 드라마에는 담지 못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는 소설 「조선왕조500년」이 '시청자' 아닌 '독자'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 남진우 기자